

이 드리[橋]는 어느 누게¹⁾ 낸 드린고?

옛날 옛적 할마님이 인간(人間)에²⁾ 신누릴³⁾ 때 만민조손(萬民子孫)에 생불(生佛)을 주저 흘 적
흐를[一日] 천명(千名) 생불을 주고 흐를 만명 환생(還生)을 줄 때 할마님이 서천강 드리[西天江
橋]를 나가 보니 수도전거리가⁴⁾ 근당(近當) 흐난 앞의 영끼(令旗) 뒤의 몸끼(令司旗) 파랑
당돌영끼⁵⁾ 벌련뒷계(別輦獨轎) 쌍가메(雙駕馬) 삼만관속(三獻官屬) 육방하인(六房下人) 거느리고
인물도감책(人物都監冊) 아늠 ？득⁶⁾ 안아 만민(萬民) 조손(子孫)에 호명을⁷⁾ 주저 대별상이⁸⁾ 누려
왔고나.⁹⁾ 할마님이 공손(恭遜)이 양무릅[兩膝] 꿀리고 열 손[十指]을 마주 붙여.

“대별상님아, 저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조손에 고온 얼굴로 호명하여 주십서.”

대별상이 그 때에사 붕에눈[鳳眼]을 버립뜨고,¹⁰⁾

“이게 어떤 일이냐! 예성(女性)이라 흐는 건 꿈에만 시꾸와도¹¹⁾ 새물(邪物)인디 남조(男子)의
대장부 행초질[行次路]에 사망(邪妄)한 예성(女性)이라 흐게 웬일이냐? 괘씸하다.”

후욕(詬辱)을 흐고 생불(生佛)할마님 탄생훈 조손 고온 얼굴이 대별상의 풍문(風雲)으로 두용박
이¹²⁾ 될 때예, 멩진국 할마님도,

“대별상의 흐는 짓이 괘씸한구나. 나신디도¹³⁾ 한번 굴복 스정(屈服事情)을 때가 이시리라.”

할마님이 생불꽃(生佛花)을 앗아다가¹⁴⁾ 대별상부인 서신국 마누라신디 유태(有胎)를 불러주니
흔두들이 지나고 열 둘이 지나고 열 두 둘이 넘어도 헤복(解腹)을 못하여간다. 서신국마누라가
죽을 수경(死境) 뛰여가난 대별상을 불러 놓고 말을 흐ಡ.

“난 이제 죽을 수경(死境) 뛰여시니 마주막에 생불할마님이나 청허여다 주옵소서.”

대별상이 생각한니,

“남조(男子)의 대장부가 어찌 예성(女性)을 청호례 가리야. 흐주마는¹⁵⁾ 마누라가 죽게 뛰염시
니¹⁶⁾ 한번 가보자.”

백망근(白綱巾)에 백도폭(白道袍)에 마부(馬夫)를 거느리고 물[馬]을 탄¹⁷⁾ 멩진국을 들어가 할마
님 앞의 근당(近當) 흐ಡ, 할마님이 눈도 걷어뜨지 아니 흐난 흘 수 엇이 대별상은 이잇돌 알로¹⁸⁾
양무릅[兩膝]을 꿀고 업대¹⁹⁾ 그제사 할마님이 말을 흐ಡ.

1) 누게 : 누구가.

2) 인간(人間) : 인간세계의 뜻으로 쓴 것.

3) 신누릴 : 내릴. ‘신-’은 접두사.

4) 수도전거리 : 네거리.

5) 파랑당돌영끼 : 고관 행차 때 드는 기(旗)들.

6) 아늠 ？득 : 한 아름 가득.

7) 호명 : 마마를 일컫는 말. ‘호명정구’라고도 함.

8) 대별상 : 마마신의 이름.

9) 누려왔고나 : 내려오고 있구나.

10) 버립뜨고 : 부릅뜨고.

11) 시꾸와도 : 꾸어도. 나타나도.

12) 두용박 : 바가지.

13) 나신디도 : 나한테도. 여격(與格).

14) 앗아다가 : 가져다가.

15) 흐주마는 : 하지만.

16) 뛰염시니 : 되고 있으니.

17) 탄 : 타서.

18) 이잇돌 알로 : 댓글 아래로.

“날 너의 집의 청호고 싶으거들랑 어서 바삐 돌아강 대공단고칼로²⁰⁾ 머리 삭삭 가까두고 훈침 질른 굴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굴장삼(長衫) 둘러입엉 멘보선 바랑에²¹⁾ 이이 알로 왕 업대호민 내가 가리라.”

대별상은 훌 수엇이 기냥 돌아가네 할마님 곤는 대로²²⁾ 행착을 출려아전²³⁾ 이이 알로 오란²⁴⁾ 업대호난 할마님이 대별상?라²⁵⁾ 말을 흐뒈.

“그만호난 하늘 노프고 땅 누자운²⁶⁾ 줄 알겠느냐? 뛰는 제주가 좋댕²⁷⁾ 허여도 누는 제주가 싯젠허여라.”²⁸⁾

“예 과연 잘못허였수다.”

“날 너이 집??지 청호커건²⁹⁾ 물멩지[水禾紬] 강멩지로 서천강(西天江)에 연드리를³⁰⁾ 노민 가겠노라.”

대별상이 물멩지 강멩지로 서천강 연드리를 노난³¹⁾ 할마님이 서신국을³²⁾ 들어사고 보니 마누라가 죽을 수경(死境)이 됐여시난³³⁾ 할마님이 은찔 ?뜬³⁴⁾ 손으로 허리를 삼식번[三番] 썰어 누리우난 구애문이³⁵⁾ 올려가고 환생(還生)을 시겨울 적. 그때, 대별상이 할마님을 청호시저 물멩지(水禾紬) 강멩지 서천강 연드리가 됐여온네다.

- 濟州市 龍潭洞 男巫 安仕仁 口誦實演

이 다리는 어느 누가 만든 다리인고?

옛날 옛적 맹진국 할머니가 인간 세상에 내려 만민 자손에 생불을 주려 할 때에 하루에 천명 생불을 주고 하루에 만명 환생을 주려고 다닙니다. 할머니가 서천강 다리에 나가 보니, 네거리가 가까와지는데 앞에는 영기, 뒤에는 영사기 등 고관이 행차 때 드는 기들이 나부끼고, 별연독교 쌍가마 삼만관속 육방하인을 거느리고 인물 도감책을 한아름 가득 안고, 만민 자손에게 마마를 주려고 대별상이 내려오고 있었구나. 할머니가 공손히 두 무릎을 꿇고 열 손을 마주 붙여,

“대별상님아, 제가 생불을 주고 환생을 준 자손에게 고운 얼굴이 되게 마마를 시켜 주십시오.”

대별상이 그때에야 봉황의 눈을 부릅뜨고,

“이게 무슨 일이냐! 여성이라 하는 것은 꿈에만 나타나도 사물인데, 남자 대장부 행찻길에 사망한 여성이라 하는 것이 웬 일이냐? 괘씸하다.”

19) 업대호니 : 옆드리니.

20) 대공단고칼 : 중이 머리 깎는 칼이라 함.

21) 멘보선 바랑에 : 맨버선 바람으로. 버선만 신은 채로.

22) 곤는 대로 : 말하는 대로.

23) 행착을 출려아전 : 복장을 차려서.

24) 오란 : 와서.

25) 대별상?라 : -더러. 여겨.

26) 누자운 : 낮은(低).

27) 좋댕 : 좋다고 해도.

28) 싯젠허여라 : 있다고 하더라.

29) 청호커건 : 청(請)할 터이면. 청하겠으면.

30) 연드리를 : 다리(橋). ‘연-’은 접두사.

31) 노난 : 놓으니.

32) 서신국 : 마마신의 나라.

33) 됐여시난 : 되었으니.

34) 은찔 ?뜬 : 은(銀)길 같은. 매우 부드러운 손의 뜻.

35) 구애문이 : 궁(宮)의 문. 여성 생식기를 뜻함.

화를 내고, 대별상은 생불 할머니가 탄생시킨 자손의 고운 얼굴에 마마를 준다. 자손의 고운 얼굴이 대별상이 주는 마마로 인해 바가지 같은 못생긴 얼굴이 되어 가니. 멩진국 할머니도,

“대별상이 하는 짓이 괘씸하구나. 나한테도 한 번 굴복하여 사정할 때가 있을 것이다.”

할머니가 생불꽃을 갖다가 대별상 부인 서신국 부인에게 유태를 주니. 한두 달이 지나고 열 달이 지나고 열 두 달이 넘어가는데 해산을 하지 못한다. 서신국 부인이 죽을 사경에 이르러 가니, 대별상을 불러 놓고 말을 하되,

“난 이제 죽을 사경에 이르렀으니, 마지막으로 생불 할머님이라도 청해다 주십시오.”

대별상이 생각하니,

“남자 대장부가 어찌 여성을 청하려 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마누라가 죽게 되었으니 한 번 가보자.”

백망건을 쓰고 백도포를 입고 마부를 거느리고 말을 타 멩진국을 들어가 할머니 앞에 가까이 갔는데, 할머니가 눈도 걷어뜨지 아니한다. 할 수 없이 대별상은 맷돌 아래로 두 무릎을 꿇고 옆드리니 그제야 할머님이 말을 하되,

“날 너희 집에 청하고 싶으면 어서 바삐 돌아가서 중처럼 머리를 삭삭 깎아두고, 한 침 지른 송낙 둘러쓰고, 두 귀 누른 장삼을 둘러 입어서 버선만 신은 채로 다시 맷돌 아래로 와서 옆드리면 내가 가겠다.”

대별상은 할 수 없이 그냥 돌아가서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행장을 차려서 다시 맷돌 아래로 와 옆드리니 할머니가 대별상에게 말을 하되,

“그만하면 하늘 높고 땅 낮은 줄 알겠느냐? 뛰는 재주가 좋다고 해도 나는 재주가 있다고 한다.”

“예 과연 잘못했습니다.”

“나를 너희 집까지 청하려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에 다리를 놓으면 가겠다.”

대별상이 물명주, 강명주로 서천강에 다리를 놓으니 할머니가 서신국에 들어서 본 즉 부인이 죽을 사경이 되었구나. 할머니는 은같은 부드러운 손으로 허리를 삼세번 쓸어 내리니 자궁이 열리며 환생이 됩니다. 그때 대별상이 할머님을 청하려 한 물명주 강명주, 서천강 다리가 됩니다.

현용준·현승환, 『제주도 무가』, 고려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1996, pp.36-39.